

보다 넓은 세상으로 도약하는 KAPE

필리핀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와서



기획경영본부 인재개발팀 과장 김명삼



PCC MOA 체결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 및 필리핀 정부 관계자와는 2010년 이전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KAPE)와 간헐적인 국제협력 교류를 하고 있었다. KAPE가 축산 기술 분야에서 동남아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에서는 우리나라와의 연결을 중시하여 KAPE와의 접촉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 및 정부 관계자는 축산 기술과 축산업 발전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고 우리나라의 기술과 연구개발 기법을 빨리

전수 받기를 원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축산물등급제, 축산물이력제, DNA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기대하였다.

2011년 국제협력단의 필리핀 방문으로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PCC)와 활발한 국제협력 교류를 논의하기 위해 쌍방의 관심 사항을 목록으로 만들고 논의를 계속하여 공식적으로 양 기관이 빠른 시일 안에 양해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자고 하였다.

이 날로부터 양해 각서를 체결하러 필리핀으로 떠나는 12월 5일까지 아홉 달 동안 전자 우편을 통하여 많은 연락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어떤 일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양해 각서의 내용이 조율되었다. 이와중에 코이카 국제협력 사업 수임을 위해 KAPE에서는 국내 연수 프로그램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체계에 대한 연수 과정 중기 추진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양해 각서가 체결되어야 교류 협력 및 KAPE 연수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난 것은 12월 5일 수요일 아주 이른 새벽이었다. 우리 일행(이원복 기획경영본부장, 김기범 유전자분석팀장, 이호철 차장, 송종호 차장, 그리고 순천대학교 서강석 교수)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 했을 때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정도인 점심때였다.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의 대외 담당을 맡고 있는 Allan과 Jojo 일행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승합차로 PCC까지 편안하게 안내해 주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기업들의 광고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자랑스러운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사뭇

좋았다. 4시간여를 이동하여 도착한 PCC 행사 주최인 Dr 크루즈(소장)가 우리 일행을 정문에서부터 반겨 주었다. PCC 카라바오 센터는 누에바에시아(필리핀 행정구역)시의 지역에 넓게 자리잡고 있었으며 양해각서 행사는 예정된 시간인 오후 4시에 시작 되었다.

PCC에서는 Dr. 크루즈 소장을 비롯하여 펠로미노 부소장 등 서른 명의 PCC 직원이 참석하였고, 통역을 위하여 김명삼(필자)가 바로 이원복 본부장님 옆에 자리하였다. 먼저 양 대표자가 각 기관을 소개하였다. 닥터 크루즈 박사는 필리핀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6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상당히 건강해 보였다.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는 유용 버펄로 생산, 사료



PCC MOA 체결장면



우량축종연구소 내의 농장방문



농업부 축산차관 미팅

및 우유 분석, 인공수정, 우량종축 개선 등 필리핀 축산산업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원복 본부장님이 KAPE를 소개하시고 난 후에 양 기간의 교류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축산 분야 및 KAPE 국내 연수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교류 협력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 기관이 이에 동의하였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쌍방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양해 각서를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방문 둘째 날과 셋째 날인 목요일, 금요일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누에바에시아에서 마닐라로 이동하여 필리핀 농업부(차관 미팅), 육류검사소(소장 미팅), 축산국(국장 미팅), 필리핀 코이카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모든 일정은 KAPE에서 추진하는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필리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코이카 프로젝트 사업으로 편성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우리 국제협력단 일행은 필리핀 정부와 필리핀 코이카 사무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연수 프로그램에 꼭 참여 하겠다는 의지를 단단히 보여주었다.

이번 필리핀 방문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PCC와의 MOA 체결과 이를 동안에 6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강행군이었는데 이것은 많은 필리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이제 필리핀 카라바오센터와 방문한 정부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한 사항들을 국제협력 프로젝트 차원에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KAPE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필리핀과 교류 협력을 확대할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KAPE의 국제 역량을 높이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일행은 상당히 빡빡한 일정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호의와 친절 때문에 마음은 행복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몰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와 방문 기관의 여러 관계자 분들, 그리고 방문 기간 내내 우리를 안내해 주신 Dr. 크루즈 박사와 일행, 그리고 KAPEDML 국제교류 협력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주신 순천대학교 서강석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류경현**

